

# 민주 “원희룡 뒷배 누구?...대통령이 답해야” 국조 ‘드라이브’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당정 “실업급여 불공정 제도 전략”...하한액 하향 추진

### 제도개선 위한 민당정 공청회 “급여보다 많아져...개선 필요”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아지는 사례가 생기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아지는 사례가 생기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잠석자들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계적 관행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로 인해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9800

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7040원보다 적어 출퇴근 비용과 식비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버는 형태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5년간 3년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 수급은 최근 5년간 24.4% 증가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기간 내 재취업률도 상당히 낮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일하는 재미보다 배짱이 더 쟁쟁해지면서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며 “불공정한 실업급여 제도가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내가 낸 보험료가 불공정하게 쓰인다면 누가 성실히 납부하고 싶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환위기 임시 조치로 크게 완화된 수급 요건이 지난 25년간 그대로 유지됐고 2017년 이후에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빠른 속도로 상승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높은 하한액, 상대적으로 관대한 수급요건’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업급여 계정의 연이은 적자로 인한 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 급여액이 더 높다는 건 성실히 일하는 다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재명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규정 국정조사 요구 국힘 “또 이재명발 가짜뉴스...정쟁확대에만 골몰” 일축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가짜뉴스’로 몰아붙이면서 양평 주민 숙원 사업의 재개를 위해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의혹의 본질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라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2일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똥발”을 찬 민주당의 사과가 사업 재개에 선행돼야 한다”며 “사건 관련 사람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 잘 나가던 사업에 왜 찬물 끼었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자기당착’이라고 비난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김 대표 방미에 동행한 이철규 사무총장은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강상면으로의 노선 변경을) 반영시켜겠다’고 했다. 심지어 ‘내 부인이 김정숙 여사와 선후배라서 반영이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대안 노선이 전 정권부터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브라운 백 미팅에서 “정쟁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선동과 정략 때문에 양평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며 “민주당은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민의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태세다. 이날은 지도부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란히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집입가경”이라며 “정부·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속도로 변경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주요 국정 사무인 만큼 왜, 누가, 어떤 경위로 중점을 바꿨는지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운영위를 소집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 과정을 통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당장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상임위 현안질의를 통한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우세했으나,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을 두고 말을 바꾸는 등의 과정이 적연치 않다고 보고 더욱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려면 결국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장관은 주요 인물도 아니고 (그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며 “원희룡의 뒷배,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인가”라고 말해 우회적으로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2023년 새로워진>

# 전남일자리 통합정보망

NEW

HTML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줄

**청년 지원사업**

사업 안내 →

전남 신종년의 희망시대

**신종년 지원사업**

사업 안내 →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시니어 지원사업**

사업 안내 →

전남일자리통합정보망 QR 바로가기

- 이용자 맞춤형 일자리 카테고리 페이지 구성
- 최적화된 웹브라우저 환경 구현
- 메인화면 재구성에 따른 모바일 페이지 반응형 웹 구현

## 윤 대통령, 나토 순방 중 긴급 NSC “북한 불법행위 반드시 대가 따른다”

### “국제사회 강력한 결속 촉구 할 것”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른 오전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며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미 간,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군사·외교적 조치를 차질 없이 실시하기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북한 도발은 글로벌 안보협력을 논의하는 NATO 정상회의 기간에 이뤄진 것”이라며 “오늘 NATO 회의 등의 계기를 국제사회의 강력한 결속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에 앞서 인사말에서 “일본 북쪽 아오모리 해상에 낙탄이 됐는데 이는 대서양 안보와 태평양 안보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면서 “우리 AP4(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 파트너국)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연대해서 강력한 집단 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나토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AP4가 지역 안보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P4 회의의 사회를 맡았으며, 이번 회의는 소속 국가 정상들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개최됐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 NSC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난해 5월 25일과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2022년 11월 2일) 이후 3번째다. 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